

4장. 조언의 본성과 조언연설의 주제

[30] 먼저, 우리는 조언하는 사람이 어떤 종류의 좋은 것들이나 나쁜 것들에 대해 조언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것들에 대해 조언하지 않고, 생길 수도 생기지 않을 수도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조언한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있거나 있게 될 것들, 또는 있거나 생길 수 없는 것들, 이것들에 대해서는 조언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가능한 것들도 모든 것에 대해서 충고가 있는 것은 아니다. [35] 왜냐하면 생길 수도 생기지 않을 수도 있는 좋은 것들 중에는 자연적으로 또는 우연히 생기는 것들이 얼마간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는 조언이 전혀 쓸모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어떤 것들에 대해 조언이 이루어지는지는 분명하다. 그것들은 본성상 우리에게로 되돌려질 수 있고, 생성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다. 1359b 왜냐하면 우리는 |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알아내는 지점까지만 살펴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답판을 짓는 것들을 하나씩 엄밀하게 열거하고 종(種)들로 분할하는 것은, 더 나아가 그것들에 대해서 되도록 진실에 맞게 정의를 내리는 일은 [5] 현재의 시점에서는 추구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연설술의 일이 아니라 더 지적인 더 충실한 학문의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연설술에 고유한 것보다 훨씬 많은 연구대상들을 연설술에 부여하고 있다. 우리가 이전에도 말하게 된 것, 즉 연설술은 분석적인 [10] 학문과 성격을 다루는 정치술로 구성되어 있고, 부분적으로는 변증술과 비슷하고 부분적으로는 소피스트적인 논증들과 비슷하다고 말한 것은 맞다. 그러나 누군가가 변증술이나 연설술을 능력이 아니라 학문으로서 정립하려 들수록, 그는 그것들을 재정립하여 단지 연설에 관한 것[기술]이 아니라 일정한 기초 대상들에 관한 학문으로 옮겨감으로써 [15] 자신도 모르게 그것들의 본성을 흐릴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정치학에 의한 탐구로 남겨두면서도, [조언연설과 관련하여] 분석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이제 말해보자.

모든 사람들이 조언을 주고, 조언연설을 하는 사람들이 [20] 말하는 주제들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들로 다섯 개가 있다. 그것들은 재정, 전쟁과 평화, 국토의 방위, 수입품과 수출품, 입법이다.

그러니 재정에 대해서 조언하려는 사람은 국가의 세입으로서 어떤 것들이 얼마만

큼 있는지를 [25] 알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만일 무엇인가가 누락되어 있으면 추가되고, 세입이 적을 경우에는 증가될 수 있도록 말이다. 더 나아가 그는 국가의 모든 지출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만일 무엇인가가 불필요한 것이라면 제거되고, 필요 이상으로 많다면 삭감되도록 말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현재의 재산을 불려서뿐만 아니라 지출을 줄여서도 더 부유하게 [30]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자기 나라의 것들에 관한 경험으로부터만 조망할 수는 없고, 다른 나라에서 발견된 것들에 대한 정보력이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조언과 관련하여 있어야 한다.

전쟁과 평화에 대해서는, 국가의 힘[군사력]을 알아야 한다. 어느 정도의 힘이 이미 갖추고 있고 얼마만큼 [35] 커질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의 힘이 어떤 성질의 것이고 어떤 힘이 부가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전쟁들을 치렀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들에 대해서도 — 특히 전쟁을 치를 가능성이 큰 나라들에 대해서 — 그런 것들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더 강한 나라들을 상대로는 평화를 유지하고, | 더 약한 나라들을 상대로는 1360a 전쟁의 결정권을 쥐도록 말이다. 그리고 양쪽의 힘이 비슷한지 비슷하지 않은지를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점에서도 우세하거나 열세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들에 관련해서도 자국이 치른 전쟁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치른 전쟁들에 대해서도 그것들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연구한 상태에 [5]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비슷한 것들로부터는 비슷한 것들이 나오는 법이기 때문이다.

국토의 방위에 대해서는, 방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간과해서 안 된다. 방위력의 크기와 종류, 초소들의 위치를 알아야 한다(이것은 국토[의 형세]에 대한 전문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방위력이 [10] 너무 약할 경우 증강되고 불필요할 경우 제거되고, 유리한 지역을 더 지키도록 말이다.

더 나아가, 식량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어떤 종류의 것이 — 자국에서 생산되는 것이든 수입될 수 있는 것이든 — 국가에 충분한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수출해야 하고 어떤 것들을 어떤 국가들로부터 수입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15] 당사자들을 상대로 계약이라든가 협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이다. 그리고 국민들을 두 종류의 사람들 — 더 강한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일들[교역]에 유용한 사람들 — 의 불평에서 벗어나도록 항시 지켜주는 일이 필요하다.

[국가의] 안전을 위해 이 모든 것들을 통찰할 수 있어야 하고, 이에 조금도 못지않게 입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국가의 보전은 [20]

법률들에 달려 있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종류의 정치체제들이 있고, 어떤 종류의 것이 각 국가에 유익하고, 어떤 요인들에 의해 — 정치체제에 고유한 요인들에 의해서든 그것에 반대되는 요인들에 의해서든 — 파괴되기 십상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정치체제에] 고유한 요인들에 의해 파멸됨’은 최선의 정치체제를 제외한 여타 모든 체제들은 [기본적인 통치 원칙들이] 느슨해지거나 [25] 팽팽해짐으로써 파멸됨을 뜻한다. 예를 들어, 민주제는 [평등의 원칙이] 느슨해져서 마침내 과두제에 이르게 될 때뿐만 아니라 너무 팽팽해질 때에도 더 허약해진다. 이는 매부리코와 들창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이다. 느슨해져서 중간[공은 코]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너무 불룩하거나 오목해져서 코처럼 보이지 [30] 않을 정도의 상태가 되기도 한다. 과거의 사건들을 관찰해 볼 때, 어떤 정치체제가 유익했는지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정치체제들에서 어떤 종류의 것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에게 어울리는지를 아는 것은 입법에 관련하여 유용하다. 그러므로 분명히, 입법을 위해서 여행기(旅行記)들이 유용하다(왜냐하면 [35] 이것으로부터 여러 민족들의 법률들을 입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치적인 조언을 위해서는 행위들에 관해 글을 쓰는 사람들의 보고들이 유용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정치술에 속한 일이지, 연설술에 속한 일이 아니다.

1360b 이러한 것들이 조언을 하려는 사람이 전제들을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사안들이다. 이런 사안들에 대하여, 그리고 다른 사안들에 대하여 권고하거나 만류할 때 출발점으로 삼는 것들을 다시 말해 보자.

5장. 조언의 목적과 행복의 요소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동으로 거의 어떤 목표가 [5] 있는데, 이것을 노리면서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선택하기도 하고 기피하기도 한다. 그것은 간략하게 말하자면 행복과 그 부분들이다. 그러니 본보기로, 행복이 간단히 말해 무엇이고, 어떤 것들로부터 그것의 부분들이 이루어져 있는지 파악해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모든 권고와 만류는 [10] 행복과 행복에 기여하는 것들과 그것에 반대되는 것들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한편으로 행복이라든가 그 부분들 중 어떤 것을 제공하는 것을, 또는 그것을 더 작게 만들기보다는 더 크게 만드는 것들을 행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 그것을 파괴하는 것들이나 그것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나 그것에 반대되는 것들을 만드는 것들을 행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행복이 탁월성을 지닌 잘함[선행]이라고, 또는 삶의 자족이라고, [15] 또는 안전을 지닌 가장 즐거운 삶이라고, 또는 재산과 신체를 보호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상태에서 그것들의 풍부함이라고 해 두자. 왜냐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것들 중 하나 또는 다수가 행복이라고 동의하기 때문이다.

행복이 그러한 것이라면, 분명히 그것의 부분들은 [20] 좋은 태생, 많은 우정, 쓸모 있는 우정, 부, 좋은 자손, 많은 자손, 좋은 노년이어야 한다. 더 나아가, 신체의 탁월성들(예를 들어, 건강, 아름다움, 체력, [큰] 체구, 경기력), [좋은] 평판, 명예, 행운, 덕[또는 덕의 부분들인 실천적 지혜, 용기, 정의, 절제]이어야 한다. 자신의 내부에 있는 좋은 것들이든 [25] 외부에 있는 좋은 것들이든 그것들이 어떤 사람에게 있다면, 그는 가장 자족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것들 말고는 다른 좋은 것들이 없기 때문이다. 내부에 있는 좋은 것들은 혼에 관련된 것들과 신체 안에 있는 것들이고, 외부에 있는 것들은 좋은 태생, 친구들, 재산, 명예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여러 가지 능력[권력]과 운도 있어야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래야 삶이 가장 안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같은 방식으로 [30] 이것들 각각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도록 하자.

좋은 태생은 민족이나 국가에서는 같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오래 정착함을 뜻한다. 선조가 저명한 지도자들이고, 존중되는 점들에서 많은 저명한 후손들이 그들로부터 생겨났음을 뜻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좋은 태생은 부계나 모계로부터 [35] 유래하고, 양쪽으로부터 적출임을 뜻한다. 그리고 국가의 경우처럼, 선조가 탁월성이나 부나 명예로운 것들 중 다른 어떤 것에서 잘 알려져 있음을 뜻한다. 그리고 가문에서 많은 저명한 인물들이 남녀노소 막론하고 나음을 뜻한다.

좋은 자손과 많은 자손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분명하다. 공동체에서 | 그것은 1361a 젊은이가 많고 — [큰] 체구, 아름다움, 체력, 경기력 같은 신체적인 탁월성 면에서 — 좋을[뛰어남] 때 이뤄진다. 혼[정신]에서는 절제와 용기가 젊은이의 탁월성이다. 개인적으로는 그것은 좋은 자손과 많은 자손은 여아든 남아든 [5] 그러한 성질의 자식들이 많이 있음을 뜻한다. 여아들에서 신체의 탁월성은 아름다움과 체구이고, 혼의 탁월성은 절제와 예속에서 벗어난 근면을 뜻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에서든, 남자들에서든 여자들에서든, 그러한 것들 각각이 있도록 추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라케다이몬[스파르타]인들에서처럼 [10] 여자들의 상황이 열악

한 곳에서는 행복이 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富)의 부분들은 많은 돈과 땅, 수나 크기나 아름다움의 면에서 특출한 임야의 소유, 더 나아가 동산(動産)과 수나 아름다움의 면에서 특출한 노예와 [15] 가축의 소유이다. 이것들은 모두 자신의 것이고, 안전하고, 자유롭고, 유용해야 한다. 생산적인 것[뉘]들이 더 유용하고, 향유를 위한 것[뉘]들은 [더] 자유롭다 (여기에서 ‘생산적인 것들’은 수입이 나오는 것들을 말하고, ‘향유를 위한 것들’은 사용 외에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곤 전혀 생기지 않는 것들을 말한다). ‘안전’에 대한 규정은 [20] 그러한 곳에서 그것들의 사용이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방식으로 그것들이 소유됨이다. ‘자기의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규정은 양도가 자신의 권한에 속하느냐에 달려 있다. 여기서 양도란 증여와 매각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부유함은 소유보다는 사용에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의 현실화 또는 사용이 부이기 때문이다.

[25] 좋은 평판은 모든 사람들에 의해 존경받는 사람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또는 모든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나 좋은 사람들이나 현명한 사람들이 지향하는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명예는 선행을 한다는 평판의 신호이다. 그리고 마땅히 특히 선행을 한 사람들에게 명예가 주어지지만, 선행을 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30] 명예가 주어진다. 선행은 안전이라든가 생존의 원인인 모든 것들에, 또는 부에, 또는 — 획득이 일반적으로 특정한 장소[상황]에서나 특정한 때에 쉽지 않은 — 다른 좋은 것들 중 어떤 것에 관련되어 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사소한 것으로 보이는 것[선행]들을 통해 명예를 얻는데, 장소와 적절한 시점이 그 원인이기 때문이다. 명예의 부분들은 봉헌(奉獻), 시문이나 [35] 산문으로 쓴 기념비, 특권, 토지수여, 앞자리, 국장(國葬), 조각상, 국비부양, 이국적인 것들 — 예를 들어 엽드림, 자리 양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경의를 표하는 온갖 선사품 — 이다. 왜냐하면 선사품은 재산의 수여이자 명예의 표시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욕이 있는 사람들과 명예욕이
1361b 있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지향한다. | 양쪽의 사람들 모두에게 선사품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재물욕이 있는 사람이 지향하는 것은 재산이고, 명예욕이 있는 사람들이 지향하는 것은 명예이기 때문이다.

신체의 탁월성은 건강이다. 그것은 신체를 사용할 때 병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방식으로 있다. 실로, 많은 사람들은, 헤로도코스에게 [5] 전해지듯, 아무도 그들의 건강을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을 방식으로 건강하다. 왜냐하면 모든, 거의

모든 인간적인 것[향락]들을 멀리했기 때문이다.

아름다움은 각각의 연령에 따라 다르다. 청년의 아름다움은 경주나 힘겨루기의 노고에 적합한 신체를 갖고, 눈요깃감으로서 호감이 가는 신체를 갖는 것이다. [10] 그렇기 때문에 5종경기자들이 제일 아름답다. 왜냐하면 그들은 체력과 속도에 동시에 소질이 있기 때문이다. 성년남자의 아름다움은 전쟁의 노고에 적합한 신체를 갖고, 호감이 갈 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심어주는 인상을 갖는 것이다. 노인의 아름다움은 필요한 노고를 충족시킬만한 신체를 갖고, 노년을 볼꼴 사납게 만드는 고통들로부터 벗어난 신체를 갖는 것이다.

[15] 체력은 원하는 대로 다른 것[사람이나 물건]을 움직이는 능력이다. 그리고 다른 것을 움직이려면 당기거나 밀거나 들거나 누르거나 쥐어야 한다. 그러므로 힘센 사람은 이 모든 것들에서 또는 이것들 중 몇 가지에서 힘센 사람이다.

체구의 탁월성은 길이와 깊이와 너비 면에서 많은 사람들보다 우월함을 뜻한다. [20] 그러나 그 우월함 때문에 신체의 움직임이 둔하게 될 정도는 아니어야 한다.

신체의 경기력적인 탁월성은 신장과 체력과 속도로 구성되어 있다(왜냐하면 빠른 사람도 힘센 사람이기 때문이다). 다리를 일정하게 내던지고 빨리 멀리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달리기선수이고, 누르고 붙들 수 있는 사람은 [25] 레슬링선수이고 타격해서 밀칠 수 있는 사람은 권투선수이고, 이 둘에서 능력 있는 사람은 이종격투기선수이고, 모든 것[종목]들에서 능력 있는 사람은 5종경기선수이다.

좋은 노년은 고통 없이 서서히 늙는 것을 뜻한다. 빨리 늙어도 좋은 노년일 수 없고, 서서히 늙어도 고통을 동반한다면 좋은 노년일 수 없다. 그것은 신체의 탁월성들과 운에서 비롯한다. 왜냐하면 [30] 병이 없고 강하지 않다면 외부 영향에 무감하지도 고통이 없지도 않을 것이고, 운이 없다면 오랜 시간을 지탱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힘[기력]과 건강과 따로 다른 어떤 장수 능력이 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신체의 탁월성들 없이도 오래 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점에 관한 당장의 상세한 논의는 당장의 목적에는 전혀 쓸모없다.

[35] 많은 우정과 쓸모 있는 우정이 뭔지는 친구에 대해 정의를 내려 보면 분명하다. 친구는 다른 사람에게 좋다고 생각되는 것을 그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친구들이 많은 사람이 정말 친구가 많다. 그들이 또한 덕망 있는 남자들이라면 쓸모 있는 친구가 있는 사람이다.

행운은 우연으로 말미암아 얻거나 소유하고 있는 — 모든 또는 | 대부분의 1362a 또는 가장 중요한 — 좋은 것들을 말한다. 우연은 또한 기술로 말미암은 몇 가지

것들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기술과 무관한 것들, 예컨대 자연에 의해 야기된 것들의 원인이다(왜냐하면 어떤 것이 자연에 어긋나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술은 건강의 원인이고, [5] 자연은 아름다움과 체구의 원인이다. 일반적으로, 우연히 생기는 좋은 것들은 질투를 유발하는 종류의 것들이다. 또한 우연은 예측하지 못한 좋은 것들의 원인이다. 예를 들어, 다른 형제들은 못생겼는데 하나만 잘 생긴 경우, 또는 다른 사람들은 보물을 보지 못했는데 한 사람만 그것을 찾은 경우, 또는 옆 사람만 화살에 맞고 [10] 이 사람은 맞지 않은 경우, 늘 오던 사람은 오지 않고 딱 한 번 온 사람들만 죽은 경우가 그렇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행운인 것들로 보인다.

탁월성은 칭찬들에 관련된 토포스[자리]가 다루기에 가장 적합하므로, 우리가 칭찬[찬사]에 대해 논의할 때, 그때 규정해야 한다.